

## 몽골 투브 아이막 문화 관광 분야의 현황과 개선방안

투브 아이막의회의장 체덱 메느사이항(Tsedev Mendsaikhan)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동북아시아 지방의회의장 포럼에 참가하는 러시아, 중국, 대한민국, 일본 각 지방 정부의 대표단 여러분! 신사, 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의장 포럼에 참가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포럼에 참가하는 대표단들의 편의와 안전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수고해주시는 김기영 충청남도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 모든 직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북아시아 국가들 교류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 포럼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참가국 기관간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는 지역 단체들이 경험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포럼 주제인 “동북아시아 지역 간 문화와 관광 교류 협력 방안”은 오늘날 제일 적합한 주제라고 판단이 되며 이번 포럼이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몽골을 전세계적으로 유목민의 나라로 또한 초원의 나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몽골은 세계에서 유목 생활과 현대적인 도시생활이 동시에 생존하는 단 하나뿐인 나라일 것입니다. 우리 투브 아이막은 몽골내에서도 관광 특색이 있는 지역입니다.

1. 투브 아이막은 지리적으로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타르에 제일 가까이 위치합니다.



울란바타르시는 130만명 인구에 몽골의 경제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우리 도의 대표 도시인 조웅머드시(Zuunmod city)는 울란바타르에서 약 43km 거리에 있습니다.

2. 우리 아이막은 도시생활과 유목 생활이 결합된 독특한 지역입니다. 몽골 초원에서 가장 중요한 가축은 말, 양, 염소, 소, 낙타로 몽골인은 이를 '오축'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말은 몽골인의 발과 같은 존재로 몽골 유목민이 넓은 초원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중요한 동물입니다. 투브 아이막은 말의 수가 몽골에서 제일 많으며 총 가축 수로 몽골에서 세 번째로 많은 도입니다.
3. 늘어나는 여객과 항공 화물의 수요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새 국제공항이 착공 중이며 2017년 1월 1일 개항할 예정입니다. 새 공항은 조웅머드시에서 12km 거리에 위치합니다.
4. 우리 도는 문화유산과 역사적인 명소들로 유명하며 중세시대 몽골의 석인상(제주도의 돌하르방과 유사함), 암각화 유적(암각화란 바위나 큰 암벽에 인물이나 동물 등의 형상을 새기거나 그려서 표현한 그림), 흉노 제국의 유적, 튀르크 시대의 기념비, 17세기 몽골의 유명 시인 척트 홍타이즈의 바위에 새겨진 시, 유명 사원과 절, 칭기즈칸기념 동상 등이 있습니다.
5. 투브 아이막은 교통 인프라 등 주변 입지 및 환경이 매우 우수하며 러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국제 철도가 있습니다.
6. 우리 도에 관광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으며 우리 지역에만 68 개의 호텔, 휴양, 요양 시설, 21 개의 관광 명소, 6개의 사원과 절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역사 속으로 떠날 수 있는 위대한 몽골 제국을 연상하게 하는 관광 휴양리조트도 포함이 됩니다.

몽골의 각 지역마다 계절별 여러가지 행사와 페스티벌들이 개최되며 몽골 유목민들의 독특한 문화와 풍습, 전통 등을 보고 체험할 수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음력으로 한 해의 첫째 달에 한국의 설날과 같은 유목민의 중요 명절 “차강 사르”라는 명절이 있는데 뜻은 “하얀 달” 입니다. 몽골에서는 흰색을 평화와 순수 또는 어머니의 모유로 비유합니다. 새해를 밝고 투명한 마음으로 맞이한다는 뜻도 담겨 있지요.

몽골의 겨울에 즐길 수 있는 축제로는 독수리 사냥 페스티벌인 “이글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독수리 사냥꾼들이 사냥하는 모습을 직접 구경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축제이다.

여름 축제로는 매년 7월 11-13일에 열리는 몽골 최대의 대표적인 민속 축제이자 스포츠 축제인 “나담 축제”가 있습니다. 몽골 전통 씨름, 말 타기, 활 쏘기 등 3 가지 경기가 축제의 중심을 이룹니다. 몽골 전국에서 각 부족을 대표해 모여든 선수들이 전통적으로 유목민에게 필수적인 생존 기술이면서 각 부족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이들 종목에 참여하여 축제 기간 동안 각축을 벌입니다. 몽골 전국적으로 21 개 도의 300 개 군에서 7월 달에 열리는 제일 큰 축제 중 하나입니다.

8월 달에는 “칭기즈칸의 병사들”, “기마병” 등 몽골 유목민들의 각양 각색의 축제와 행사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9월 달에는 몽골에서 흔히 여러 지역에서 가축을 각인하는 축제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망아지 귀나 몸에 도장을 찍고 마유주(말 젖을 발효 시켜 만든 술)를 즐겨 마시는 몽골 유목민의 축제이다. 또한 말 타기 체험, 낙타 타기 체험, 개 썰매 타기 체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투브 아이막은 생태 관광개발을 위하여 “호스타잉 노로” 국립 공원에서 멸종위기인 몽골에서만 서식하는 야생 말 “타히”, 야생 양 “아르갈”과 야생 염소 “양기르” 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몽골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59%가 우리 도를 방문한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인들이 가고 싶은 10 곳 안에 투브 아이막 지역에 있는 “테렐지” 국립 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투브 아이막 개발 프로젝트 2008-2023년” 프로젝트에서는 우선 순위로 우리 도의 관광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자립적인 관광 지역으로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우리 도 관광 지역을 4 구역으로 나누어 개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 관광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구역
2. 관광개발 중에 있는 구역
3. 관광발전 가능성이 있는 구역
4. 관광 특별 구역



이들 구역에서 이미 여러 관광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이며 “칭기즈칸 동상”, 108미터에 달하는 “마이다르 부처님의 동상”(뉴욕의 자유의 여신상보다 높음) 등이 있습니다.

급속히 변하고 있는 세계화 시대에 국제 관광사업 시장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몽골 정부에서 관광 개선사업의 증진과 지역협력 공동 사업 등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몽골에서 “동아시아 관광 포럼”(East Asia Inter-Regional Tourism Forum - EATOF)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본 포럼에 러시아 연해주, 대한민국 강원도, 중국 지린성 등이 참석을 했으며 아름다운 충청남도에서 또 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몽골인들의 주 여행 국가는 유럽, 아랍에미리트, 동남아 태국,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며 동북아 지역내에서는 러시아 부랴티아(바이칼 호소), 중국 내몽고자치국 하이난, 대한민국 서울, 제주, 일본 동경(스모 경기 관람) 등이 이에 속합니다.

민간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도에 한국국제협력기구( KOICA)에서 파견된 관광 전문 인력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역사와 문화 풍습이 다릅니다. 그러나 서로 소통하고 공동의 발전과 이익을 추구하고 노력하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관광교류협력의 영역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역정부의 관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문화관광 교류협력이 한층 더 확대되고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제7차 동북아지역 지방의회 의장포럼의 원만한 성공을 빌며 모든 참가국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